

大學新聞

유럽의 극우,
대중의 대변자인가 약자의 압제자인가
▶10-11면



분노의 빛 지난 12일(토)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'모이자! 분노하자! #내려와라_박근혜' 집회가 열렸다.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진집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오후 7시 30분 3차 범국민행동으로 이어졌다. 이번 집회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이상이 모여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. 글: 사진: 강승우 기자 kangsw0401@snu.kr

서울대 교수 728명 “대통령이 책임져야”

지난 7일(월) 오전 11시 아시아 연구소(101동) 삼익홀(220호)에서 '헌정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'이 진행됐다. 기자회견은 △경과보고 △성명서 낭독 △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고 기자회견 후 4월학생혁명기념탑(4·19탑)까지의 행진이 이어졌다. 이날 서울대 교수 일동은 “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”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. 이번 성명서는 역대 서울대 교수 성명서 중 최다 인원이 참여했으며 7일 오전 10시 기준 전체 서울대 교수 인원의 3분의 1 가량인 728명의 서명이 담겼다. 성명

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에는 381명,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에 204명, 2015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393명의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 바 있다. 김명환 교수(영어영문학과)는 “시국이 워낙 엄중해 교수협의회(교수협)의 도움으로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돌림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 이어 그는 “아직 서명 문안이 첨부된 메일을 받지 못한 교수들이 있다”며 “서명을 계속 받을 생각”이라고 전했다.

▶2면에서 이어집니다.
박찬미 기자 astranlia@snu.kr

오늘부터 제59대 총학생회 선거 본투표 시작

14일(월) 오늘부터 17일까지 제59대 총학생회(총학) 선거 본투표가 실시된다. 선거는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진행된다. 종이투표의 경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34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는 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(vote.snu.ac.kr)에서 24시간 투표할 수 있다. 대부분의 단과대 학생회 선거도 총학생회 선거 일정에 맞춰 실시된다. 3월에 선거를 진행하는 자연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과대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본투표를 시행한다. 그 중 사범대는 14일부터 15일까지, 경영대는 14일부터 16일까지, 공대는 14일부터 18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

이다. 특히 이번 공대 학생회 선본 「공존」은 공대에서 5년 만에 나오는 선본으로 공대가 연석회의 체제에서 학생회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 한편 총학 선거는 지난 11일 「더:하다」 선본이 부후보의 언어적 성폭력을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이번 선거는 「U」와 「달음」 두 선본만으로 치러지게 됐다. 두 선본은 지난 7일 열린 제59대 총학 선거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으며 11일 자하연에서 2차 공동유세를 진행했다. 『대학신문』에서는 제59대 총학 선거를 앞두고 각 선본의 기조와 핵심 공약, 주요 사안에 대한 각 선본의 입장을 정리했다.

▶3면에서 이어집니다.
강경희 기자 jenna3507@snu.kr

사람 > 5면 역사학자 김기협 인터뷰

“우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‘독립’을 하지 못했습니다”



사회

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, 양당 정치에 반기를 들다
▶6면

학술

자율주행, 운전대 없는 자동차를 꿈꾸다
▶8면

문화

1인 방송은 지금 온 에어!
▶9면



선한 인재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!



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. 선한 인재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.

매월 30만원 X *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

* 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



만만한 기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!
행복한 나눔을 곁에 두는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습관
www.facebook.com/giving2snu

